

제 67 호

사순절 제 2 주일

1974. 3. 10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신  
 인쇄인 김 불 희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 【강 료】

## 예수의 거룩한 변모는 우리의 회개를 뜻한다.

김 요 셉 신부



우리는 오늘 천국과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있으신 그대로의 본 모습 즉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신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인류를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갈바리아 산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영광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멀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훌륭한 사람, 기적의 사람, 예언자, 현세적 뱀사아로 여겨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시켜 영광의 기세를 울릴 현세의 왕자로 군림하기를 믿고 기대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생소하여 예수께 부당한 일로 만류할 정도였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의 거룩한 변모는 필요했던 것이다. 성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복돋우며 아울러 사순절의 본 의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수의 거룩한 변모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거룩한 변모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위, 우리의 존재 전체의 변형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 세상과 인류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과 통찰력을 통해 그리스도화 함을 뜻한다. 다시말하면 회개를 뜻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회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우선 결점이 없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며 또 자랑할만한 개인적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남에게 존경을 받는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도 아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활의 동기이며, 목표로서 모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 이웃사람을 통하여 배로써 자연과 서적을 통하여 특별히 미사와 성사를 통해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참다운 회개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빈궁함, 우리의 부패함, 자신에 대한 내면적 비천, 빈궁, 부패를 자각하지 않는 한 참다운 회개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눈으로써 본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지로써 사랑한다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을 뜻한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에 “네”하고 대답하는 것을 뜻한다. 그분을 우리 세계와 또 그분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에게 모셔오는데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을 뜻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길은 이 회개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덕진성당 주임 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이 내 마음 당신께 아뢰옵고, 이 내 얼굴 당신을 찾고 있음나이다. 내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 15 ; 5-12, 17-18 경향잡지, 3월호 p. 52)

하느님께서 축성시킨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다.

□**찬계송** ◎주님은 나의 빛, 내 구원이시도다.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내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내 누구를 무서워하랴. ◎

□**제 2독서** (필립비 3 ; 17-4, 1 성서, P. 453)  
그리스도께서 당신 광명의 육신을 닮게 하시리라.

□**복음 전 노래**, 빛나는 구름 헤치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하시도다.

□**복음** (루가 9 ; 28b-3b 성서, P. 152)  
기도하실때 그의 모습이 달라졌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지금이야말로 서로 화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을 몰아내고 이해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여...

2. 불행한 이의 벗이신 주여, 이 사순절 동안 우리 모두가 당신을 본받아 우리 이웃의 불행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소서. ◎

3. 주여,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이 자기의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고용주들도 그들의 후생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소서. ◎

4.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여,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우리주...◎ 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4) 폐회식

### ＊숲정이 산책＊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 는 되겠습니까?

### 성체가 이빨에 닿으면 ?



박진량 신부

영세한지 얼마 안되는 신자들에게서 흔히 받는 질문이다. 「영성체할 때 성체가 이빨에 닿으면 안 됩니까?」 물론, 하긴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첫 영성체 준비를 시키면서 신신당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성체를 받아 먹을 때는 이빨로 씹지 말고 혀로 받아서 정성스레 삼켜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로 주시는 사랑의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라고 강조하였다. 성혈은 액체음료 모습 (Per modum potus)으로, 성체는 고체음식 모습으로 (Per modum cibi) 우리에게 오셨으니, 성혈은 마땅히 「마셔야 하고 성체는 마땅히 고체 음식처럼 씹어먹는 것이 본 취지에 맞는 일이다. 영성체를 제대로 하려면 성체를 입안에서 완전히 녹이지 말고 삼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체가 완전히 녹아버린 다음에 삼키면 고체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영성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로마에서 동방예식으로 드리는 미사중에 영성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토스트 (구운 빵)와 비슷한 제병을 조그만 덩어리로 잘라서 썼기 때문에 누구나 씹어서 먹었다.

그러면, 서방교회 예전에 속하는 우리는 왜, 영성체할 때 이빨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11세기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미사 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회는 미사용 빵을 영성체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태어 이빨로 씹지 않아도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체의 일부분이 이빨 사이에 낀다든지 해서 성체제 대한 불경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 것이, 차츰 전통화해서 아예 이빨에 닿지 말아야 한다는 타부(taboo 禁制)처럼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영성체 할 때 이빨에 닿지 않도록 (혹은 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성체를 정성스레 받아 먹으라는 뜻이지 어찌다가 이빨에 닿았다고 해서 죄가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가톨릭 센타 관장)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함승천 신부

돌아올 3월 19일날은 우리 노송동 성당을 예수님의 덕분으로 신축하게 되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지 저도 흐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만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오 21 ; 13절)

첫째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의 궁전을 짓는데 들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지어야겠습니다.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고 하셨습니다. (고린트 전 3 ; 16)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니까 모든 신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그때의 성전을 지어야지요. 누가 자기집을 질때에 형편없이 아무렇게도 집을 짓겠습니까? 아름다운 정원과 맑은 연못과, 그보다 더한 재주를 다 쌓을 겁니다. 하물며 하느님의 집은 그것보다 훌륭하고, 엄숙하고, 또 아담스럽게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궁전이야말로 미술적이고 실비적인 것이어야 하느님과 우리 신자들도 만족하겠습니다.

성 다리아노는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걸려 있는 십자가 상으로 부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내 집은 곧 쓸어질 것 같으니 빨리가서 나의 집을 고쳐 주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하느님께 허물어진 궁전을 바치지 말고, 정성껏 한 사람도 빠짐없는 마음을 다해 새로운 하느님의 궁전을 마련 합시다.

우리들의 제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뜻 깊은 정성과 알뜰한 마음으로 노송동 신축공사에 좀더 적극적인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봅시다.

(노송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 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주犬분양 (임한진 애견) 문의처 :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 교형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③ 6094

귀가 잘 들리지 않은 분에게 희소식!

- ◆ 보청기(補聽器) 입하
- ◆ 의로기계 ◆ 학교실험기계

### 동남의료과학기계상사

전화 ③ 4367 (병원-의과대학 중간)

양 지 쪽



『그럴 듯 해』

김 길 수

얼마전 MBC 텔레비의 인기프로였던 사극 입적정에서, 그의 휘하 막창중 한사람이 자기성격이나 계획에 맞는 일이면, 그 일의 성패를 불문코 「그럴 듯 해」하고 긍정하던 모습이 선하다. 한때 이말이 유행이 되어 꼬마들도, 어른들도, 일의 성과가 어떻든 그 계획이 화려하면 「그럴 듯 해」하고 코믹하게 애매 모호한 긍정을 하곤 했다. 일의 결과가 분명히 오리무중 이거나 속수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듯 해」하면 거기에는 커다란 계산 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그의 막창이 아무리 「그럴듯한」 지략과 용맹을 떨쳤다 하더라도 전술의 헛점이 들어난 이상 패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사극의 「그럴듯한」 주인공의 얼굴에서 지혜보다는 무지름, 용기보다는 무모한 만용을, 작전계획 보다는 무계획한 행동을 읽어 볼수 있었다. 성실한 생활태도 보다는 방종한 무절제가 겹쳐한 장수로서 보다 자기독선과 기만에 쌓인 오만불손한 교만이 그의 생활을 지배했고 더구나 동지에 보다는 자기에게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쉽게 우정과 의리를 배신할 수 있음을 그에게서 발견 했다. 또 우리는 가끔 그럴듯한 사람의 감미로움 때문에 일생을 우는 아가씨들을 만난다. 사람의 「속」보다 「겉」을 중요시 한 시행 착오이다.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히 여기는 사회는 재산, 지위, 권리등을 인간 우위에 놓고 인간을 희롱하기도 한다. 이른바 비인간화로 인한 인간 추방을 말한다. 교회안에도 이러한 비정상적의 횡포는 예외가 아니다. 문명과 문화는 발전과 성장을 향해 변화된다.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을 잃은 발전이 있다면 알맹이를 잃은 발전이 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예수없는 교회」로 생각하는 이유도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활화된 신앙의 집단이 아니고 거대한 제도와 형식속에 움직여야 하는 낡은 기구와 교회당만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정신인 것이다. 교회는 아픔을 갖는 진실에 참여하는 행동을 낳는 산실이어야 한다. 현대인은 건물이나 제도, 그 자체만을 가진 그럴듯한 교회나 신자들을 냉소한다. 아무도 그러한 신자생활에 동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위장된 기독교 신자들이기 때문이다.

요심이 (34) 김병호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②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 금요일 7시 반...일부러 교실 (강사: 김용환 선생)
- ※ 회원들의 절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금요일 하루 더 공부합니다.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 이 주간의 성경 \*

- |  |  |
|--|--|
| 11(월) 독서(다 니 9: 4b-10)<br>복음(루 가 6: 36-38, 성서 P.140)       | 14(목) 독서(예 레 17: 5-10)<br>복음(루 가 16: 19-31, 성서 P.175)                      |
| 12(화) 독서(이 사 1: 10, 16-20)<br>복음(마 태 오 23: 1-12, 성서 P. 55) | 15(금) 독서(창 세 기 37: 3-4, 12-13a17b-28)<br>복음(마태오 21: 33-43, 45-46, 성서 P.51) |
| 13(수) 독서(예 레 18: 18-20)<br>복음(마 태 오 20: 17-28, 성서 P. 47)   | 16(토) 독서(미 케 7: 14-15, 18-20)<br>복음(루 가 15: 1-3, 11-32 성서 P.171)           |

가톨릭센타 「시민 상담실」 설치 안내

- 건강문제; 담 당 자~염광섭(성모병원 내과과장)  
상담시간~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 인생문제; 담 당 자~김현수(전주교대 교수, 전북 인  
간관계 교육협의 이사 대표)  
상담시간~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
  - 여성문제; 담 당 자~안지은 가톨릭센타 총무)  
상담시간~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
  - 자녀교육문제; 담 당 자~조혜형(전주동중교장, 노송  
동성당 사도회장)  
상담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
  - 외국문제; 담 당 자~(Miss. Anita Stalf)  
상담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8시~9시
  - 신앙문제; 담 당 자~박진량(천주교 신부; 가톨릭 센  
타 관장)  
상담시간~매주 토요일 오후 8시~9시
- ※ 위와 같이 오는 3월부터, 가톨릭 센타 218호실에 상  
상담실을 설치하여, 각 분야별로 편성된 담당자가 정해  
진 시간에 기다리고 있겠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  
은 적당히 선택하여 널리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이며, 서신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 4 지구 6 개 본 당 소 식

[소]

1. 주교 춘계 정기총회 (3월11-16일 ; 수원 말씀의 집)  
주교님들의 총회가 성공리에 끝날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 합시다.

2. 매주 금요일마다 성년행사 (중앙성당(오전 10시미사후-오후 8시까지))  
성체 현시와 특별 고백성사 (오후 3시-5시)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

3. 학생 레지오 마리에, 학생회 및 학생 셀 간부회의  
(3월17일 .해성학교 종교감실 ; 오후 2시)  
교구단위 및 본당 단위 간부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원들도 참석 하실수 있습니다.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3874      보좌 신부 박창복  
                         사도 회장 이복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체현시 및 특별 고백성사 실시 (매주 금요일)  
성년행사로 오전 10시 미사후~밤 8시까지
3. 성모회 (다음주 영명 축하식후)
4. 가정방문 (금주내 : 배평 1가, 서노종동)
5.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3월19일)  
사정에 의해 17(일) 공식미사후에 신부님의 수교  
와 업적에 감사드리며 많은 기구 드립니다.
6. 학생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15대 회장단 및 임원선출, 사업보고.  
지난 주일 봉헌금 38,167원(협조와 분발을 요망)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 요셉 성월,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미사후)  
함동으로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성미에 알뜰한 정성을 바랍니다
3. 복자 성우회 (오늘 공식 미사후)
4. 사제 양성 후원금을 제달에 완납 하십시오
5. 주일 봉헌금 (감사와 축제의 길로 정성껏)
6. 주일 학교 교리에 적극 협조 (3월3일부터 시작)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미사참례자수 10시 ; 354명7시반 ; 107명  
지난주일 성미 2말 6되 누계 260말 2되  
지난주일 봉헌금 13,95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노송성당 신축 기공식 (3월19일)  
교우 여러분께서는!  
하느님의 공전을 신축하는데 적극 협조 합니다.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약축금 (2만원)배봉래, (만5천원) ; 성우회 (만원) ;  
한영순, (5천원) ; 강대안, (3천원) ; 최형, 밝히려  
않은 분 (2천원) ; 조상구, (천원) ; 최금연, 김부자  
안말순, 이양순, (5백원), 김갑인  
지난주 신축기금 89,500원 누계 759,250원  
지난 주일 신축 성미 3말 4되 누계 145말 4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84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사도회 월례회 (오후 미사후)  
사도회 임원, 구역회장 및 각 반장님까지 참석.
2. 상관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가정 방문 일정  
12(화) ; 15, 16반(오후2시), 13(수) ; 14반 17반 (오후 2시) 14(목) ; 11반
4. 공소 볼 판공 일정  
20(수) ; 의암리 .마치리 . 21(목) ; 신흥리 .백암리  
22(금) ; 서당 .내정 .복재 . 25(월) ; 마음리 (구이면),  
28(목) ; 의어루리 .석장리 . 29(금) ; 내어루리 .  
30(토) ; 신리  
★ 축결혼 ★ (3월13일 오전 11시)  
손희상군, 엄영순(테레사)양  
지난 주일 봉헌금 10,572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금주 미사시간  
월, 화(아침 6시반) 수-금(없음) 토(오후 7시 반)
2.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 (17<일>오전 10시미사후)  
많은 신자의 참여와 축하에 협조와 신부님을 위한  
많은 기구 부탁드립니다.
3. 학생 L.M 임시변경 (매주일 오전 9시)  
회원들은 시간을 엄수하며 빠짐없는 참여 바람.
4. 애령회 기금 조성 성미 모금운동 (협조 바람)
5. 각 L.M 간부회 (없음 ; 퇴정관계로)
6. 신용조합 월례회 (3월24일로 연기)
7. 앰프 마련에 협조해 주신분 (목표액 70,000원)  
지난주 완납... (5백원) 신순영, 신입 (천5백원)  
노남식  
총완납액 61,400원 누계 62,900원 부족액 7,1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5,31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저녁미사후, 수요일 저녁  
미사후)
2. 자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사도회 월례회 (저녁 미사후)
4. 신용조합 월례회 (14(목) 저녁 7시반)
5. 부녀부 소식 (매주 토요일 저녁 ; 어머니미사)  
회장 ; 이엘리사벳 부회장 ; 이누시아  
총무 ; 이막달레나.
6. 주일학교 일일교장 엄익도 선생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무금 신입 현황 (520세대 : 2,878,800원)  
신입하신 금액을 속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녀부 성금 19,765원 성미 1되  
지난주일 봉헌금 36,744원, 감사합니다.